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과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진영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 전공

박 성 혜

2016년 6월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과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진영

박 성 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박성혜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년 6월

Effect of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Jeju Region on Contact with
Pornography and Sexual Awareness

Sung-Hye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Jin-You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16.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6. 6.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국문초록>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리	3
II.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기	5
2. 자아존중감	9
3. 음란물	10
4. 성인식	13
5.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 모형	16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6
3. 측정도구	17
4. 자료 분석방법	20
IV. 분석결과	2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2.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음란물 접촉실태 및 성인식 수준	23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음란물 접촉 및 성인식 수준의 차이분석	30
4.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여부와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48
V. 결론 및 제언	70
참고문헌	74
부록	79
Abstract	83

표목차

<표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	18
<표 2> 성인식에 대한 측정도구	19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4>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24
<표 5> 음란물 접촉 실태	26
<표 6> 성인식의 일반적 경향	28
<표 7> 인구사회학적 변인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31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음란물 접촉	33
<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35
<표 10>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37
<표 1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순결의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39
<표 1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41
<표 1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충동조절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43
<표 1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45
<표 1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전체적인 성인식에 대한 차이비교	47
<표 16>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48
<표 17>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9
<표 18>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인식 수준의 상관관계	52
<표 19>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3
<표 20>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4
<표 21>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5
<표 22>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6
<표 23>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7
<표 24>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7
<표 25>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59
<표 26>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여부에 미치는 영향	60

<표 27> 자아존중감과 성인식과의 상관관계	62
<표 28> 자아존중감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3
<표 29> 자아존중감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4
<표 30> 자아존중감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5
<표 31>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6
<표 32> 자아존중감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7
<표 33> 자아존중감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8
<표 34>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9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16
-------------------	----

<국문초록>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과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성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김진영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면서 문화, 생활의식, 의식구조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면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에 관한 문화를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특히 청소년은 성지식과 정보를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통해서보다는 대중매체나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친구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음란물접촉과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6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546부에 대해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자료를 처리를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란물 접촉상태에서는 43.0%의 중학생이 음란물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이후에 친구를 통해 처음 음란물을 접하고,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음란물을 시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핵가족, 대가족, 기타가족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경제적수준이 넉넉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자아존

중감도 높았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음란물 접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음란물 접촉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음란물 접촉 경험이 높았다. 또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음란물 접촉경험이 훨씬 많았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전체적인 성인식의 차이분석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인식이 높았고,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성인식이 높았으며, 핵가족, 대가족, 기타가족의 순으로 성인식이 높았다. 경제적인 수준이 넉넉할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전체적인 성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전체적인 성인식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인식의 하위요인 중 성 평등, 성충동조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과 중학생의 성인식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급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현실적으로는 성인 신분에도달하지 못한 채 성인 역할을 훈련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특성 때문에 청소년은 많은 갈등과 문제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인생 격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일어나며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놀라움과 불안, 혹은 열등감과 자신감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존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자아상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일컬어 Hall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였다.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라는 뜻으로 청소년기의 격동적인 감정생활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즉,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감정적인 동요가 심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음란물 노출은 성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또한 성적 잠재기로서의 인식이 강하여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성가치관을 갖추지 못하고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급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윤정애, 2010).

이러한 청소년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은 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로 쉽게 그리고 걸리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청소년 성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첨단 미디어들을 통한 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성윤리의 정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박병금·노필순, 2009).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44시간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가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10대 95.2%, 20대 99.3%로 거의 모든 청소년(10~20대)들이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들은 ‘커뮤니케이

션' 94.4%, '여가활동' 93.3%, '자료정보검색' 91.0% 순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은 중학생 73.0%, 고등학생 78.1%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고등학생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이다. 중고등학생이 이용, 경험한 유해매체는 '휴대폰 성인물' 52.6%, '케이블 TV의 성인용 프로그램' 42.7%, '성인용 간행물' 34.1%순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의 유해매체 이용경험은 '휴대폰 성인물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휴대폰(스마트폰) 성인물,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 등은 2012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비디오, DVD, CD'나 '컴퓨터 성인물'등의 이용은 감소하였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을 이용한 유해매체 접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은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범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강진영, 2009).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더불어 유해매체 접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규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튠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성관련 키워드(예: sex, adult, nude)를 검색하면 수많은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다. 정보와 더불어 유해매체들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하게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개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본이 되며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수요건이라고 느껴진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하며 전반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끼는 것”을 이른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만족도로 인해 앞으로의 문제나 상황에 대한 태도와 대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본이 되며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

감을 느끼는데 필수요건으로 느껴진다.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동이 가장 많이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받는 부모와의 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달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에 따라 음란물 접촉 및 성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 및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음란물 접촉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성인식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자아존중감은 성인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감정적·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또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태도로 중요한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학습 등을 통해 형성되며 전 생애에 걸쳐 변한다(Rosenberg, 1965).

2) 음란물 접촉

음란물은 인간의 신체 또는 성행위를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 성적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경, 2009). 청소년이 주로 보는 음란물에는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다. 인터넷음란물이란 ‘가상공간에서 성적 충동과 행위를 야기하는 표현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관련 정보와 자극의 일체를 포함한다(남영옥·이상준, 2002). 또한 음란한 소설(야설), 음란한 사진(야사), 음란한 동영상(야동) 음란한 만화, 음란 게임 등이 있다. 음란물 접촉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 접촉을 의미한다.

3) 성인식

성(性) 인식이란 성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말하며, 성에 대한 감정, 견해, 지식,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인식이 높다는 것은 건강한 이성교제 의식, 윤리적인 순결 의식, 성충동 조절 의식, 올바른 성폭력 의식이 있다는 것으로 본다(계수연, 1999).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1) 청소년기의 정의 및 특성

청소년의 개념은 20C초 홀(Hall, 1904)이 처음으로 ‘청소년기’란 용어를 소개하여 정식으로 인간 발달 과정의 독립된 한 시기로 인식하였으며 청소년을 영어로 adolescence, puberty로 사용한다. adolescence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에 속한 남, 여를 의미하며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한다(김혜숙, 1995).

K Lewin에 의하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서 아동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중간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그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주변인’이라 칭해진다. 즉, 주변인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의미는 어린이와 어른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박영순, 2003).

10대 청소년기는 ‘무엇이다’라는 표현 보다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간적 단계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는 아동기가 아니며 성인기도 아닌, 두 단계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이다. 또한 옛날 아이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아동기를 지나기 때문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 훨씬 긴 청소년기를 보낸다(데이비드 월시, 2011).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세는 나이로 열네 살부터 열아홉 살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응하는 영어는 사춘기를 뜻하는 puberty, 13~19세를 이르는 teenage가 있다. 영어의 어미에 -teen이 들어가는 숫자가 13~19이므로 teenage

라고 하며 이 시기는 청소년기 및 사춘기와 거의 일치한다. 즉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부터 성장이 급속화 되는 2차 급속성장기의 성장이 끝나 성인이 되기 전의 연령을 이르는 말이다.

10대는 ‘위기의 시대’라고도 한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성인과 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특히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춘기’를 둘러싼 문제가 많다. 생각, 판단, 계획, 충동조절, 감정조절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사춘기에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확장공사를 겪는다고 한다. 청소년기 내내 전두엽의 확장공사가 이루어져서 여자는 스물네 살, 남자는 서른 살쯤 돼야 완성된다고 한다. 사춘기에는 공사 중인 집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최성애·조벽, 2012).

Freud(1920)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극적인 신체적 변화, 생리적 변화로 인해 격동의 단계이며, 잠복기 동안에 잠자고 있던, 성적, 공격적 충동은 이제 자아와 그 방어를 압도할 정도로 위협한다고 하였다. 잠복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성적쾌감을 추구하고 자기애착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비로소 타인인 이성으로부터 성적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동과 성인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로 인해 주위환경과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서경춘 2008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신체 생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여자 10세, 남자 13세를 전후해 성장 급등기를 맞이하며 여자는 13세, 남자는 15세 정도에 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신체발달과 함께 성호르몬의 발달 및 2차 성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체, 생리적 변화는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 그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성충동이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정서적 혼동을 경험하게 되며 정서적혼돈은 불안감과 과민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신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긴장감을 수반한다.

둘째, 지적 특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지능은 12-14세 까지 대체로 급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발달 속도가 원만해 지며, 17-18세경에 정점에 달한다. 청소년기는 지능의 우열에 의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

라서 지능 발달이 지체된 청소년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형식적 조작의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역적 또는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추리와 탐색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하기도 한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점차 현실적·합리적 사고를 갖게 되며, 자신에 대한 탐색 또한 보다 완숙한 수준에 이른다.

셋째, 정서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정서적 혼돈을 경험한다. 정서적 혼돈은 불안감과 과민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신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긴장감을 수반한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이나 폭주 등은 정서적 불안감이나 긴장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생존전략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감정의 양가성을 나타낸다. 즉 존경심과 열등감, 의존과 자립, 부모에 대한 애정과 경멸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갖는다.

넷째, 가정환경 또는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즈음 그들의 부모 또한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자신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부모 역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체감 혼미에 따를 갖가지 문제행동은 그들 부모의 정체감 위기가 가세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체감 확립을 조력하고 사회적 적응과 삶의 만족감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의 정체감 위기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그들은 아동기의 무조건적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배타적 성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교우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깊이가 점차 증대되고, 기성세대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이나 반항에서 합리적 비판과 논리적 대항의 자세가 된다(한상철, 1998).

2) 청소년기의 성(性)적 특성

청소년기는 여자의 경우 초경이 시작하고 남자는 몽정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여자는 11세경, 남자는 13세경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성적 태도와 가치관의 발달이다. 이 성적 태도와 가치는 사회제도나 구조로 만들어진 규범에 의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적절한 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남녀 간의 성숙한 관계형성, 이성간의 교우관계의 적용에 대한 관심,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수행능력, 올바른 이성관과 흥미의 확립 등이 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박정숙, 2005).

Jersild(1957)는 청소년의 성을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점에서 성인의 성과는 다른 특징을 제시하였다(백미성, 2014에서 재인용).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 하며, 둘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 진다고 하였다. 셋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서있지 않다. 막연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의 견해와 사고방식에서 행동한다. 넷째. 이 시기는 성욕의 배출구 때문에 문제를 갖는 자가 적지 않으며, 사회적인 성문화에 의한 자극이 강하여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크다. 다섯째, 특히 성인의 성도덕관과 청소년의 성 도덕관의 차질 때문에 때로는 억압된 형태로, 때로는 방임적인 형태로 기울어져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성적 악순환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이문희, 1993).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의 증가와 함께 성적 욕구가 커지면서 아동기에 비해 성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특징된 것이 아닌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이성과 성행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주변의 친구가 성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숙을 확인하려는 욕구 때문에, 이성 친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또 성행동을 통해 쾌감을 얻기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에서 성행

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의 성행동은 어느 정도 일상이 되었으며, 성행동을 직접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이 성행동에 관심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성행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성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세희, 2006).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자아개념은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Rosenberg, 1979)이므로 자아존중감 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혜영, 2012에서 재인용).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조춘범·임진섭, 2010).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혹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평가에 있어 특정하고 일시적인 변화보다는 비교적 지속성이 오래 유지되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경험과 성, 연령 및 역할규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아평가’ 라는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성취와 역량,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른 속성 등을 검토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결정하게 되는 판단적인 과정을 말하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장영배, 2000에서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자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기가치감이다.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예상하는데 반해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

고 예상한다.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 싫증나고 지루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믿는다.

둘째,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희망적인 것에 비해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지며 자신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도덕적 자기평가이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남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다. 도덕적 자기평가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이무석·이인수, 2015).

3. 음란물

1) 음란물의 개념

음란물은 인간의 신체 또는 성행위를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경, 2009).

우리 사회에서는 음란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포르노그래피’라는 경험적 개념이 보다 현실성을 갖는다(김준호 외, 1994).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porne and graphos에서 유래되었으며 “매춘부의 시각적 묘사”를 의미한다. 즉 porne는 매춘부에 관하여, Graphos는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서재희, 2015).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 표현물’이라고 정의한다.

즉, 행위(보통 자위를 뜻한다)를 유발시키는 글이나 이미지가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다(이철원, 2009).

법적인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2조, 2014.1.28.개정)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9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의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둘째,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셋째,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넷째,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다섯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여섯째, 그 밖의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상의 여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정의 할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제9조, 2015).

2)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음란물은 성과 관련된 환경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청소년이 성에 대해 잘못된 정서와 시각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양돈규·조남근, 2004), 일부 청소년은 인터넷 음란물에 심각하게 중독되기도 한다(남영옥·이상준, 2002). 음란물 중독은 특히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거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여 성충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어기준, 2002), 부적절한 성행위를 모방 또는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변진수, 2002).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과 Cline(1974)은 일반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4단계의 반응 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1단계는 호기심으로 보는 단계이다. 처음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성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에 놀라면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게 된다. 음란물을 본 후에도 청소년은 한동안 그 장면이 자꾸 떠올러지는 연상 작용을 경험하고, 호기심에 다시 음란물을 보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단계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단계이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분 시켰던 음란물도 자주 보다 보면 싫증이 나게 된다. 따라서 점차 더 자극적인 장면, 더 노골적이고 과격적인 음란물을 찾아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하는 욕구가 생긴다.

3단계는 음란물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단계이다. 음란물에서 설정된 장면이나 내용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음란물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음란물의 내용이 일반적인 성의 표현이나 성 행위로 잘못 이해 될 수 있다. 음란물에 표현된 비위생적인 성행위나 근친상간, 강간 등을 청소년이 일반적인 성의 형태로 생각하게 된다.

4단계는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음란물을 통해 여러 형태의 성행위를 알게 되면 실제 성행위를 경험해 보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강한 성 충동을 자위로 해소하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이성 친구와 관계를 맺는 등 실제로 성행위를 실행할 방법을 찾게 된다(Cline, 1974; 김막희, 2003에서 재인용).

청소년은 음란물에 대해 점차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며 음란물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음란물 중독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탐닉하게 되고 추후에는 자신의 결혼생활은 물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윤진·박윤창, 1995).

3) 음란물로 인한 청소년 성문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성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음란물로 인한 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최정순, 2009).

첫째, 성 개념의 혼란을 야기한다. 음란물에 나타난 성은 다분히 성기 중심적이다. 따라서 인격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인간관계로서의 성을 행위중심으로 보게 하여 남녀를 서로의 행위 대상자로만 보게 한다. 즉, 성행위는 즐기기 위한 쾌락적인 행위이고 여기에서는 남성의 성적인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성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음란물에서의 성행위는 매우 가학적이며 강간과 유사한 형태도 묘사된다. 즉, 음란물에서의 성은 성추행이나 다양한 가해자에 일어나는 강간 등의 성폭력이 잦은 빈도로 등장한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의 인식은 없다. 이는 성폭력이 범죄라는 의식을 희석시키고 단지 성행위의 한 종류인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와 장기적으로 결혼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경우, 이것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오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결혼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4. 성인식

성(性) 인식이란 성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말하며, 성에 대한 감정, 견해, 지식,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性) 인식이 높다는 것은 건강한 이성 교제 의식, 윤리적인 순결 의식, 성충동 조절 의식, 올바른 성폭력 의식이 있다는 것으로 보며(계수연, 1999), 성지식은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 녀 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관한 사실들을 포함하며, 포괄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김기숙, 2005). 특히 청소년에게 성지식은 주로 사춘기와 성적 발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Winn, Rucker & Coleman, 1995; 임지영, 2010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지적 바탕 위에 성적 징후와 그 행동에 의하여 정서는 성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급격한 신체적 성격 성숙과 더불어 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성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동경하게 되며 성적인 충동 때문에 갈등과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이문희, 1993).

이 시기의 남녀는 신체적인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사물이나 이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다. 성적인 상상과 백일몽이 많은데 비해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예인, 운동선수, 선생님 등을 정서적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성숙이 빠른 사람이 이성교제도 빠르며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관심을 주려고 하며 이성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쉽게 좋아한다고 용모나

복장에 관심이 많고 이성과 신체적 접촉의 가능성이 많은 놀이를 좋아한다. 이 시기의 행동 특성은 같은 나이 또래의 이성 전반에게 애정을 품으며 이성에 대한 화제가 많아진다(이돈희, 1996).

5. 선행연구 고찰

제형강(2013)의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음란물노출이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예측변인으로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장애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태도의 경우 음란물 추구성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낮아져 성에 대해 허용 적이며 비윤리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미희(2009)는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경험이 성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음란물 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정화목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들에게 가정의 화목정도나 평소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의 결속력 특히 부모님의 사랑, 인정, 대화 및 교감 등에 따라 정서적, 심리적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다고 하였다.

강춘식(2008)의 중학생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간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따른 음란물 중독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음란물 중독 정도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독정도가 높았고, 중독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변인이 부정적 요소가 많은 학생들이 음란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신봉기(2013)의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따른 음란물 노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상자가 음란물 노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애(2010)의 청소년 성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연구결과 성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참여한 후 자아존중감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으며 성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은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1순위,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2순위,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각각 3순위와 4순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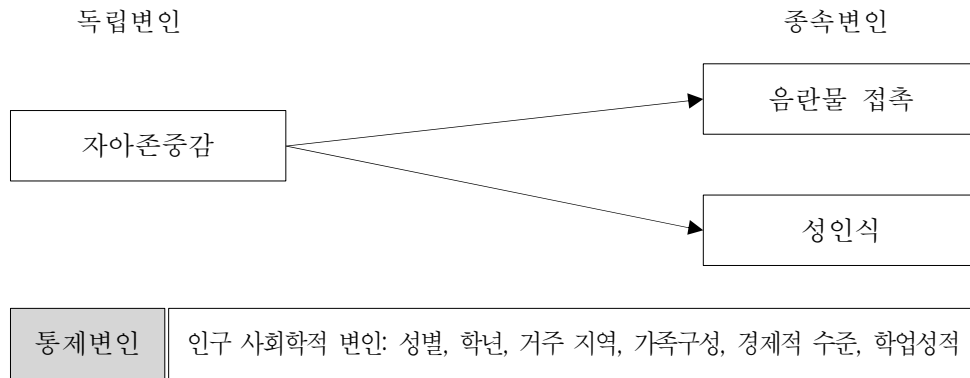
김혜영(2012)의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성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성인식 총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성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모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등에 대해 제시하고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내용과 측정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모형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정성과 문항들에 대한 이해정도와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3월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4월에 실시하였다.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도시지역 3개 학교 300명, 농어촌지역 2개 학교 300명

을 대상으로 총 600부를 배부하여 94.3%인 566부가 회수 되었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거나 같은 번호만으로 응답한 20부를 제하고 최종적으로 546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6개 문항, 음란물 접촉 관련 변인 6개 문항, 자아존중감 10개 문항, 성인식 17개 문항 등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거주 지역, 가족구성, 가족경제수준, 본인의 학업성적수준을 측정하였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 모두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다. 부정적 문항 5개는 응답점수를 역 채점하여 처리하였다. 가능한 총 점수는 10점에서 50점이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세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

문항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 *은 역채점문항

3) 음란물 접촉 변인

음란물 접촉변인으로는 음란물 접촉여부,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 음란물을 처음 보게 된 동기, 시청경로, 시청 장소, 함께 보는 사람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음란물을 접촉 경험은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문항은 접촉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응답을 받았다.

4) 성인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性) 인식 척도는 Reiss Scales (1985)이 개발하고, 이문희(1993), 김수련(1997), 권선주(2008), 권봉만(2012) 등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척도이다. 이 검사지는 전체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하위요인 (이성교제 의식, 순결의식, 성충동 조절의식, 성폭력의식, 임신 . 낙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性) 인식이 높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자세한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성인식에 대한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	문항 수
성 평등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이다. 여성의 지위상승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2
성폭력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성폭력에 관련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3
순결의식	성행위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순결은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순결을 지켜야 한다.	3
이성교제	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바람직한 일이다.	5

	<p>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일이다.</p> <p>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이다.</p> <p>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성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p> <p>성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p>	
성충동 조절	<p>성충동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p> <p>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p>	2
임신 · 낙태	<p>낙태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p> <p>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해야 한다.</p>	2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for Window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음란물접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음란물 접촉여부에 따른 성인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음란물 접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자 49.8%, 여자 50.2%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년은 1학년 33.5%, 2학년 29.9%, 3학년 36.6%로 학년별로도 차이 없이 비슷하였다.

거주 지역은 도시지역 54.6%, 농어촌지역 45.4%로 도시지역이 약간 많았다.

가족구성은 핵가족 72.3%, 대가족 13.7%, 한 부모 혹은 조손 가족 등의 기타가족이 13.9%로 핵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넉넉한 편이라는 응답이 20.3%, 보통이라는 응답이 76.9%, 어렵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나 본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중위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업성적은 상 16.8%, 중 64.7%, 하 18.5%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72	49.8
	여자	274	50.2
	합계	546	100.0
학년	1학년	183	33.5
	2학년	163	29.9
	3학년	200	36.6
	합계	546	100.0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54.6
	농어촌지역	248	45.4
	합계	546	100.0
가족 구성	핵가족	395	72.4
	대가족	75	13.7
	기타	76	13.9
	합계	546	100.0
경제적 수준	상	111	20.3
	중	420	76.9
	하	15	2.8
	합계	546	100.0
학업 성적	상	92	16.8
	중	353	64.7
	하	101	18.5
	합계	546	100.0

2.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음란물 접촉실태 및 성인식 수준

1)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반적 경향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채점 문항으로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으로 분석을 할 때는 역채점 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는 평균 3.89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4.18점,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2.41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문항이 4.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2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4.12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11점 순으로 나타났고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응답이 4.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응답이 1.98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문항이 2.01점,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2.03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78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반면 성품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없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다.	0 (0.0)	10 (1.8)	90 (16.5)	121 (22.2)	325 (59.5)	4.39 (0.82)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4 (0.7)	15 (2.7)	143 (26.2)	155 (28.4)	229 (41.9)	4.08 (0.92)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3 (0.5)	11 (2.0)	125 (22.9)	190 (34.8)	217 (39.7)	4.11 (0.86)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0.7)	19 (3.5)	118 (21.6)	170 (31.1)	235 (43.0)	4.12 (0.92)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 (0.4)	16 (2.9)	102 (18.7)	168 (30.8)	258 (47.3)	4.22 (0.87)
긍정적 자아존중감 M(SD)	4.18(0.72)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20 (40.3)	159 (29.1)	114 (20.9)	45 (8.2)	8 (1.5)	2.01 (1.04)
5.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228 (41.8)	151 (27.7)	123 (22.5)	37 (6.8)	7 (1.3)	1.98 (1.02)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9 (3.5)	30 (5.5)	166 (30.4)	169 (31.0)	162 (29.7)	3.78 (1.04)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33 (42.7)	143 (26.2)	104 (19.0)	53 (9.7)	13 (2.4)	2.03 (1.11)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2 (33.3)	140 (25.6)	136 (24.9)	75 (13.7)	13 (2.4)	2.26 (1.13)
부정적 자아존중감 M(SD)	2.41(0.72)					
자아존중감 전체 M(SD)	3.89(0.64)					

a) N(%)이며 전체는 546명임

2) 조사대상자의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대상자의 음란물 접촉실태는 음란물 접촉여부, 처음 접한 시기, 주요 시청 동기, 주요 시청 경로, 주요 시청 장소, 함께 보는 사람으로 <표 5>와 같다.

음란물 접촉여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43.0%, ‘없다’는 응답이 57.0%로 나타나 음란물을 접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접해봤다는 응답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촉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처음 접한 시기는 ‘중학생 이후’가 52.3%, ‘초등학교 4-6학년’이 43.0%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초등 1-3학년’은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란물 접촉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청 동기는 ‘친구를 통해 보았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았다’는 응답이 30.2%, ‘광고를 보다가 우연히 시청했다’는 응답이 9.4%, ‘일부러 검색해서 봤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나 친구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시청 경로는 ‘스마트폰’이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터넷’이 18.3%, ‘책’이 2.6%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 폰은 이용한 음란물 시청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시청 장소는 ‘자신의 집’이 82.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친구의 집’은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나 PC방’에서의 시청 비율은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함께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혼자 본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성친구와 함께 본다’는 응답은 13.2%, ‘이성친구와 함께 본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요컨대 음란물은 친구를 통해 처음 접하고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집에서 혼자 음란물을 시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백미성(2014)의 논문에서도 음란물을 처음 친구를 통해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 동일하다. 최현경(2012)의 결과에서도 음란물을 주로 시청하는 장소는 자신의 집에서 시청하고, 함께 보는 대상보다 혼자 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동성친구와 같이 본다는 응답 순이었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5> 음란물 접촉 실태

(단위 : 명, %)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음란물 접촉	있다	235	43.0
	없다	311	57.0
	합계	546	100.0
처음 접한 시기	초등 1-3학년	11	4.7
	초등 4-6학년	101	43.0
	중학생 이후	123	52.3
	합계	235	100.0
주요 시청 동기	친구를 통해	118	50.2
	검색하다가 우연히	71	30.2
	일부러 검색해서	10	4.3
	광고를 보고	22	9.4
	기타	14	6.0
합계	235	100.0	
주요 시청 경로	인터넷	43	18.3
	스마트폰	175	74.5
	책	6	2.6
	TV	1	0.4
	DVD, CD	2	0.9
	기타	8	3.4
합계	235	100.0	
주요 시청 장소	우리 집	194	82.6
	친구 집	20	8.5
	PC방	1	0.4
	학교	4	1.7
	기타	16	6.8
합계	235	100.0	
함께 보는 사람	혼자	186	79.1
	동성친구와 함께	31	13.2
	이성친구와 함께	6	2.6
	형제, 자매	1	0.4
	기타	11	4.7
합계	235	100.0	

3) 조사대상자의 성인식수준

성인식수준 살펴보면 성인식 전체는 3.48점으로 보통이상의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별로는 성충동조절인식이 4.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폭력인식이 3.97점, 순결의식이 3.40점, 이성교제인식이 3.20점, 임신, 낙태인식이 2.44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성충동 조절인식을 보면 '성충동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는 항목에 43.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7.1%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성충동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9.1%, '그렇다'는 응답이 26.9%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 중 70%이상이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인식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4.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는 항목이 4.52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이다'는 항목은 4.3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응답은 2.6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후의 통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결의식에서는 '미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3.82점, '순결은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3.7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행위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는 항목은 2.60점으로 나타나 성행위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성교제인식에서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일이다'는 항목이 3.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이다.'는 항목이 3.60점, '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바람직한 일이다.'는 응답이 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는 항목은 2.71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성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는 응답은 2.54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낙태인식에서는 '낙태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항목

이 2.87점, '낙태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항목이 2.87점으로 나타나 낙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성인식의 일반적 경향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이다.	5 (0.9)	15 (2.7)	105 (19.2)	90 (16.5)	331 (60.6)	4.33 (0.94)
여성의 지위상승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34 (6.2)	40 (7.3)	178 (32.6)	121 (22.2)	173 (31.7)	3.66 (1.18)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5 (0.9)	4 (0.7)	64 (11.7)	100 (18.3)	373 (68.3)	4.52 (0.8)
성폭력에 관련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6 (1.1)	3 (0.5)	52 (9.5)	61 (11.2)	424 (77.7)	4.64 (0.77)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48 (27.1)	82 (15)	167 (30.6)	87 (15.9)	62 (11.4)	2.69 (1.33)
성폭력인식 M(SD)	3.97(0.62)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순결을 지켜야 한다.	9 (1.6)	25 (4.6)	181 (33.2)	172 (31.5)	159 (29.1)	3.82 (0.96)
순결은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	13 (2.4)	29 (5.3)	190 (34.8)	145 (26.6)	169 (31)	3.78 (1.02)
성행위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102 (18.7)	154 (28.2)	190 (34.8)	63 (11.5)	37 (6.8)	2.60 (1.12)
순결의식인식 M(SD)	3.40(0.78)					
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바람직한 일이다.	49 (9.0)	50 (9.2)	222 (40.7)	128 (23.4)	97 (17.8)	3.32 (1.14)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23 (4.2)	36 (6.6)	204 (37.4)	156 (28.6)	127 (23.3)	3.60 (1.04)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일이다.	14 (2.6)	28 (5.1)	154 (28.2)	180 (33.0)	170 (31.1)	3.85 (1.00)
성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	106 (19.4)	107 (19.6)	220 (40.3)	67 (12.3)	46 (8.4)	2.71 (1.16)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성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119 (21.8)	147 (26.9)	184 (33.7)	60 (11.0)	36 (6.6)	2.54 (1.14)
이성교제인식 M(SD)	3.20(0.76)					

성충동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12 (2.2)	19 (3.5)	128 (23.4)	148 (27.1)	239 (43.8)	4.07 (1.00)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7 (1.3)	17 (3.1)	107 (19.6)	147 (26.9)	268 (49.1)	4.19 (0.94)
성충동조절인식 M(SD)	4.13(0.93)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해야 한다.	220 (40.3)	156 (28.6)	131 (24.0)	22 (4.0)	17 (3.1)	2.01 (1.04)
낙태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100 (18.3)	93 (17.0)	193 (35.3)	100 (18.3)	60 (11.0)	2.87 (1.23)
임신낙태인식 M(SD)	2.44(0.92)					
성인식 전체 M(SD)	3.48(0.38)					

a) N(%)이며 전체는 546명임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음란물 접촉 및 성인식 수준의 차이분석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8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3.97점, 여자가 3.80점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자아존중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93점, 3학년 3.91점, 1학년 3.82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3.96점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3.80점인 것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1$).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인 경우 3.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가족이 3.85점, 기타가족이 3.64점 순으로 나타나 핵가족, 대가족, 기타가족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p < .01$).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4.17점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반면 보통인 경우 3.81점, 어려운 경우 3.76점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넉넉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01$).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4.14점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학업성적이 보통인 경우 3.91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56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p < .001$).

김은수(2015)의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남·여 간에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고 경제적 수준은 넉넉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7> 인구사회학적 변인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3.97	.57	3.065**	.002
	여자	274	3.80	.69		
학년	1학년	183	3.82	.65	1.510	.222
	2학년	163	3.93	.65		
	3학년	200	3.91	.62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3.96	.64	2.867**	.004
	농어촌지역	248	3.80	.63		
가족 구성	핵가족	395	3.94	.61	7.001**	.001
	대가족	75	3.85	.68		
	기타	76	3.64	.71		
경제적 수준	상	111	4.17	.55	14.691***	.000
	중	420	3.81	.64		
	하	15	3.76	.77		
학업 성적	상	92	4.14	.59	22.663***	.000
	중	353	3.91	.62		
	하	101	3.56	.63		
합계		546	3.89	.64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음란물 접촉여부의 차이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음란물 접촉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남자가 52.6%, 여자의 경우는 33.6%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음란물 접촉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1$). 최현경(201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란물 접촉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의 경우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1.1%, 2학년은 51.5%, 3학년은 47.0%로 나타나 2학년의 접촉경험이 가장 많고, 3학년, 1학년 순으로 음란물 접촉 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p < .001$).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7.7%, 농어촌지역의 경우 25.4%로 나타나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음란물 접촉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1$).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핵가족은 45.3%, 대가족 32.0%, 기타 가족 42.1%로 음란물 접촉경험은 가족 구성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인 경우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9.5%, ‘중’인 경우 음란물 접촉이 있다는 응답이 41.4%, ‘하’인 경우의 음란물 접촉 경험은 40.0%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음란물 접촉 경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인 경우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4.3%, ‘중’인 경우 음란물 접촉이 있다는 응답이 40.5%, ‘하’인 경우의 음란물 접촉 경험은 41.6%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음란물 접촉 경험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음란물 접촉 (단위 : %, 명)

변수	구분	음란물 접촉		계	X ² (p)
		있다	없다		
성별	남자	52.6 (143)	47.4 (129)	100.0 (272)	20.093*** (.000)
	여자	33.6 (92)	66.4 (182)	100.0 (274)	
학년	1학년	31.1 (57)	68.9 (126)	100.0 (183)	16.633*** (.000)
	2학년	51.5 (84)	48.5 (79)	100.0 (163)	
	3학년	47.0 (94)	53.0 (106)	100.0 (200)	
거주 지역	도시지역	57.7 (172)	42.3 (126)	100.0 (298)	57.655*** (.000)
	농어촌 지역	25.4 (63)	74.6 (185)	100.0 (248)	
가족 구성	핵가족	45.3 (179)	54.7 (216)	100.0 (395)	4.591 (.101)
	대가족	32.0 (24)	68.0 (51)	100.0 (75)	
	기타	42.1 (32)	57.9 (44)	100.0 (76)	
경제적 수준	상	49.5% (55)	50.5 (56)	100.0 (111)	2.420 (.298)
	중	41.4 (174)	58.6 (246)	100.0 (420)	
	하	40.0 (6)	60.0 (9)	100.0 (15)	
학업성적	상	54.3 (50)	45.7 (42)	100.0 (92)	5.808 (.055)
	중	40.5 (143)	59.5 (210)	100.0 (353)	
	하	41.6 (42)	58.4 (59)	100.0 (101)	
계		43.0 (235)	57.0 (311)	100.0 (546)	

***p<.000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식 수준의 차이비교

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평등 인식 수준의 차이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성 평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은 3.9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3.87점인 것에 비해 여자는 4.1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p < .01$).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3.80점, 2학년은 4.06점, 3학년은 4.12점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 .01$).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이 4.15점, 농어촌지역이 3.81점으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이 4.07점, 대가족이 3.93점, 기타가족이 3.66점으로 핵가족, 대가족, 기타가족 순으로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p < .01$).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4.13점, 보통인 경우 3.98 점, 넉넉하지 않은 경우 3.43점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넉넉할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 < .05$).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4.36점, 보통인 경우 4.01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61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3.87	.88	-3.386**	.001
	여자	274	4.12	.87		
학년	1학년	183	3.80	.87	7.013**	.001
	2학년	163	4.06	.91		
	3학년	200	4.12	.84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4.15	.82	4.586***	.000
	농어촌지역	248	3.81	.92		
가족 구성	핵가족	395	4.07	.85	7.114**	.001
	대가족	75	3.93	.91		
	기타	76	3.66	.92		
경제적 수준	상	111	4.13	.85	4.499*	.012
	중	420	3.98	.88		
	하	15	3.43	.98		
학업 성적	상	92	4.36	.73	18.466*	.000
	중	353	4.01	.85		
	하	101	3.61	.96		
합계		546	3.99	.88		

*p<.05, **p<.01, ***p<.001

②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폭력 인식 수준의 차이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폭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평균은 3.95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3.67점, 여자가 4.23점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이 3.98점, 2학년이 3.89점, 1학년이 3.98점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점수를 보여 학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응답자가 3.99점으로 농어촌지역의 응답자가 3.91점인 것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의 경우 3.98점, 대가족이 3.95점, 기타 3.81점으로 나타나 조손가족 및 한 부모 가족 등의 기타 가족구성의 학생들의 성폭력인식이 핵가족이나 대가족 구성의 학생들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3.99점, 보통인 경우 3.94점, 어려운 경우 4.09점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4.09점, 보통인 경우 3.96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81점으로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가까울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p<.05$).

<표 10>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3.67	.62	-10.522***	.000
	여자	274	4.23	.61		
학년	1학년	183	3.97	.67	1.065	.345
	2학년	163	3.89	.76		
	3학년	200	3.98	.59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3.99	.67	1.324	.186
	농어촌지역	248	3.91	.68		
가족 구성	핵가족	395	3.98	.67	2.000	.136
	대가족	75	3.95	.58		
	기타	76	3.81	.77		
경제적 수준	상	111	3.99	.75	.606	.546
	중	420	3.94	.65		
	하	15	4.09	.62		
학업 성적	상	92	4.09	.55	4.310*	.014
	중	353	3.96	.68		
	하	101	3.81	.74		
합계		546	3.95	.67		

* p<.05, ***p<.001

③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순결의식 인식 수준의 차이 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순결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다.

전체적인 순결의식의 평균은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3.43점, 여자가 3.37점으로 남자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 3.45점, 2학년 3.47점, 3학년 3.30점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3.32점,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3.49점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순결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이 3.37점, 대가족이 3.51점, 기타가족이 3.43점으로 대가족, 기타가족, 핵가족 순으로 순결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3.50점, 보통인 경우 3.37점, 어려운 경우 3.53점으로 보통인 경우 순결의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3.42점, 보통인 경우 3.40점,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39점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순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순결의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3.43	.78	.964	.335
	여자	274	3.37	.77		
학년	1학년	183	3.45	.74	2.904	.056
	2학년	163	3.47	.84		
	3학년	200	3.30	.75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3.32	.78	-2.598*	.010
	농어촌지역	248	3.49	.77		
가족 구성	핵가족	395	3.37	.77	1.005	.367
	대가족	75	3.51	.75		
	기타	76	3.43	.85		
경제적 수준	상	111	3.50	.76	1.622	.199
	중	420	3.37	.77		
	하	15	3.53	.97		
학업 성적	상	92	3.42	.77	.029	.972
	중	353	3.40	.78		
	하	101	3.39	.76		
합계		546	3.40	.78		

*p<.05

④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 인식 수준의 차이 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이성교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2>과 같이 전체적인 이성교제의 평균은 3.2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3.26점, 여자가 3.15점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인 경우 2.99점, 2학년은 3.19점, 3학년은 3.41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p < .001$).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3.63점, 농촌지역 3.01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1$).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인 경우 3.25점, 대가족인 경우 3.10점, 기타 가족구성인 경우 3.05점으로 핵가족의 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가족, 조손가족 및 한 부모가족 등의 기타가족 구성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3.31점, 보통인 경우 3.18점, 어려운 경우 3.05점으로 경제적 수준이 넉넉할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3.40점, 보통인 경우 3.18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12점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p < .05$).

<표 1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3.26	.80	1.655	.099
	여자	274	3.15	.72		
학년	1학년	183	2.99	.77	15.093***	.000
	2학년	163	3.19	.81		
	3학년	200	3.41	.65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3.36	.76	5.520***	.000
	농어촌지역	248	3.01	.72		
가족 구성	핵가족	395	3.25	.76	3.032*	.049
	대가족	75	3.10	.77		
	기타	76	3.05	.76		
경제적 수준	상	111	3.31	.85	1.632	.197
	중	420	3.18	.73		
	하	15	3.05	.92		
학업 성적	상	92	3.40	.80	3.975*	.019
	중	353	3.18	.73		
	하	101	3.12	.80		
합계		546	3.20	.76		

*p<.05, ***p<.001

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의 차이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충동조절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적인 성충동조절의 평균은 4.1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4.12점, 여자 4.15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도 1학년 4.14점, 2학년 4.10점, 3학년 4.14점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 없이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이 4.28점, 농촌지역이 3.95점으로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1$).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인 경우 4.18점, 대가족인 경우 4.12점, 기타 가족구성인 경우 3.91점으로 조손가족 및 한 부모가족 등의 기타 가족구성의 학생들의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4.17점, 보통인 경우 4.12점, 어려운 경우 4.10점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 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4.50점, 보통인 경우 4.14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76점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 .001$).

<표 1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충동조절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4.12	.99	-.380	.704
	여자	274	4.15	.86		
학년	1학년	183	4.14	.95	.119	.888
	2학년	163	4.10	.97		
	3학년	200	4.14	.87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4.28	.83	4.186***	.000
	농어촌지역	248	3.95	1.01		
가족 구성	핵가족	395	4.18	.88	2.687	.069
	대가족	75	4.12	1.00		
	기타	76	3.91	1.06		
경제적 수준	상	111	4.17	1.02	.107	.898
	중	420	4.12	.90		
	하	15	4.10	.93		
학업 성적	상	92	4.50	.68	16.139***	.000
	중	353	4.14	.92		
	하	101	3.76	.99		
합계		546	4.13	.93		

***p<.001

⑥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임신·낙태 인식 수준의 차이 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임신·낙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전체적인 임신·낙태의 평균은 2.4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2.42점, 여자가 2.46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2.47점, 2학년이 2.52점, 3학년이 2.34점으로 나타나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이 2.49점, 농어촌지역이 2.37점으로 거주지역의 차이 없이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이 2.45점, 대가족이 2.35점, 기타가족이 2.79점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경우 2.44점, 보통인 경우 2.46점,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경우 1.97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2.38점, 보통인 경우 2.44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2.50점으로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2.42	.94	-.446	.656
	여자	274	2.46	.91		
학년	1학년	183	2.47	.86	1.928	.146
	2학년	163	2.52	.95		
	3학년	200	2.34	.95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2.49	.95	1.518	.130
	농어촌지역	248	2.37	.89		
가족 구성	핵가족	395	2.45	.94	.490	.613
	대가족	75	2.35	.95		
	기타	76	2.49	.80		
경제적 수준	상	111	2.44	1.07	2.041	.131
	중	420	2.46	.88		
	하	15	1.97	.69		
학업 성적	상	92	2.38	1.06	.406	.666
	중	353	2.44	.90		
	하	101	2.50	.89		
합계		546	2.44	.92		

⑦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의 차이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전체적인 성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전체적인 성인식의 평균은 3.4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3.44점, 여자가 3.53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3.42점, 2학년이 3.49점, 3학년이 3.38점으로 나타나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3.56점,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3.38점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p < .001$).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인 경우 3.51점, 대가족인 경우 3.45점, 조손 가족 및 한 부모 가족 등 기타가족인 경우 3.36점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학생들이 성인식이 가장 높고 대가족, 기타가족의 순으로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수준이 넉넉한 경우 3.56점, 보통인 경우 3.47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3.36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넉넉할수록 성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p < .05$).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3.65점, 보통인 경우 3.48점,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3.35점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전체적인 성인식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p < .001$).

이영선(2011)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부유한 경우가 빈곤한 경우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1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전체적인 성인식에 대한 차이비교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t	p-value
성별	남자	272	3.44	.39	-2.845**	.005
	여자	274	3.53	.37		
학년	1학년	183	3.42	.35	4.763**	.009
	2학년	163	3.49	.42		
	3학년	200	3.53	.37		
거주 지역	도시지역	298	3.56	.36	5.637***	.000
	농어촌지역	248	3.38	.38		
가족 구성	핵가족	395	3.51	.38	5.583**	.004
	대가족	75	3.45	.39		
	기타	76	3.36	.37		
경제적 수준	상	111	3.56	.45	3.474*	.032
	중	420	3.47	.36		
	하	15	3.36	.35		
학업 성적	상	92	3.65	.36	15.501***	.000
	중	353	3.48	.35		
	하	101	3.35	.44		
합계		546	3.48	.38		

*p<.05, **p<.01, ***p<.001

4.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여부와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1)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의 상관관계는 $r=.130(p<.01)$ 로 남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지역과의 상관관계는 $r=.122(p<.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도시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적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r=.216(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도 $r=.273(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16>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성별	학년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130**	.055	.122**	.216***	.273***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 $p<.01$,*** $p<.001$

②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1단계에서 학업성적($\beta=.273$, $p<.001$)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45$, $p<.001$)과 경제적 수준($\beta=.176$, $p<.001$)이 선택되었고 3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38$, $p<.001$), 경제적 수준($\beta=.173$, $p<.001$) 및 성별($\beta=.106$, $p<.01$)이 선택되었다. 4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44$, $p<.001$), 경제적 수준($\beta=.174$, $p<.001$), 성별($\beta=.107$, $p<.01$), 학년($\beta=.083$, $p<.05$)이 선택되었다. 또

한 본 회귀 식은 1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성별 및 학년이며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학년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17>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33.030		35.958***	.279	.075		43.881***
	학업성적	2.939	.273	6.624***				
2	(상수)	28.167		19.382***	.324	.105	.030	31.774***
	학업성적	2.631	.245	5.944***				
	경제적수준	2.515	.176	4.275***				
3	(상수)	27.744		19.075***	.341	.116	.011	23.700***
	학업성적	2.556	.238	5.794***				
	경제적수준	2.467	.173	4.213***				
	성별	1.357	.106	2.620**				
4	(상수)	26.248		16.191***	.351	.123	.007	18.947***
	학업성적	2.627	.244	5.955***				
	경제적수준	2.492	.174	4.268***				
	성별	1.371	.107	2.655**				
	학년	.637	.083	2.063*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인식 수준과의 상관관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인식 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에서 전체적인 성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전체적인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는 $r=-.121(p<.01)$ 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성인식의 하위요인에서는 성 평등과 성폭력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과 성 평등과의 상관관계는 $r=-.144(p<.01)$ 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 평등에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성폭력과의 상관관계도 $r=-4.11(p<.001)$ 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전체적인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는 $r=.129(p<.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식의 하위요인과 성별과의 상관관계는 성 평등, 순결의식, 이성교제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 평등과의 상관관계는 $r=.149(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년과 순결의식과의 상관관계는 $r=-.085(p<.05)$ 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순결의식에 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학년과 이성교제와의 상관관계는 $r=.229(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지역과 전체적인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는 $r=.235(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식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 평등, 순결의식, 이성교제, 성충동조절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성 평등과의 상관관계는 $r=.193(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과 순결의식과의 상관관계는 $r=-.111(p<.05)$ 로 부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순결의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지역과 이성교제와의 상관관계는 $r=.230(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과 성충동조절과의 상관관계는 $r=.177(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전체적인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는 $r=.112(p<.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성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인식의 하위요인과 경제적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성 평등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성 평등과의 상관관계는 $r=.110(p<.05)$ 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과 전체적인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는 $r=.231(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과 성인식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는 성 평등, 성폭력, 이성교제, 성충동조절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성 평등과의 상관관계는 $r=.252(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업성적과 성폭력과의 상관관계는 $r=.125(p<.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적과 이성교제와의 상관관계는 $r=.108(p<.05)$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과 성충동조절과의 상관관계는 $r=.237(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성충동조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인식 수준의 상관관계

	성 평등	성폭력	순결의식	이성교제	성충동 조절	임신·낙태	성인식 전체
성별	-.144**	-.411***	.041	.071	-.016	-.019	-.121**
학년	.149***	.007	-.085*	.229***	-.001	-.062	.129**
거주 지역	.193***	.057	-.111*	.230***	.177***	.065	.235***
경제적 수준	.110*	.014	.051	.077	.020	.031	.112**
학업성적	.252***	.125**	.009	.108*	.237***	-.039	.23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5, **p<.01, ***p<.001

②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i.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1단계에서 학업성적($\beta=.252$, $p<.001$)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66$, $p<.001$)과 학년($\beta=.172$, $p<.001$)이 선택되었고 3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51$, $p<.001$), 학년($\beta=.173$, $p<.001$), 거주 지역($\beta=.172$, $p<.001$)이 선택되었다. 4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62$, $p<.001$), 학년($\beta=.171$, $p<.001$), 거주 지역($\beta=.165$, $p<.001$), 성별($\beta=-.152$, $p<.01$)이 선택되었다. 또한 본 회귀 식은 14.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 평등 인식 수준에는 학업성적, 학년, 거주 지역 및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 및 학년이 높을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며 거주 지역이 도시인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생들에 비해 성 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9>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3.254		25.594***	.252	.064		36.910***
	학업성적	.373	.252	6.075***				
2	(상수)	2.846		17.917***	.305	.093	.029	27.786***
	학업성적	.394	.266	6.496***				
	학년	.181	.172	4.188***				
3	(상수)	2.723		17.131***	.350	.122	.029	25.168***
	학업성적	.371	.251	6.180***				
	학년	.182	.173	4.282***				
	거주 지역	.304	.172	4.263***				
4	(상수)	2.835		17.750***	.381	.145	.023	22.989***
	학업성적	.388	.262	6.521***				
	학년	.180	.171	4.282***				
	거주 지역	.292	.165	4.132***				
	성별	-.268	-.152	-3.816***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 p<.001

ii.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1단계에서 성별($\beta=-.411$, $p<.001$)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성별($\beta=-.422$, $p<.001$)과 학업성적($\beta=.155$, $p<.001$)이 선택되었다. 또한 본 회귀 식은 19.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인식 수준에는 성별과 학업성적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성폭력 인식 수준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4.227		113.863***	.411	.169		110.705***
	성별	-.553	-.411	-10.522***				
2	(상수)	3.888		42.012***	.439	.193	.024	64.876***
	성별	-.568	-.422	-10.922***				
	학업성적	.175	.155	3.999***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iii.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1단계에서 거주 지역($\beta=-.111$, $p<.05$)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112$, $p<.001$)과 학년($\beta=-.087$, $p<.001$)이 선택되었다. 또한 본 회귀 식은 2.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는 거주지역과 학년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거주지역이 농어촌 지역인 학생들의 순결의식 인식수준이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순결의식의 인식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3.493		71.326***	.111	.012		6.751*
	거주 지역	-.172	-.111	-2.598*				
2	(상수)	3.657		38.879***	.141	.020	.008	5.477**
	거주 지역	-.174	-.112	-2.635**				
	학년	-.080	-.087	-2.040*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5, **p<.01, ***p<.001

iv.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1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230$, $p<.001$)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234$, $p<.001$)과 학년($\beta=.233$, $p<.001$)이 선택되었고 3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224$, $p<.001$), 학년($\beta=.242$, $p<.001$), 학업성적($\beta=.107$, $p<.01$)이 선택되었다. 또한 본 회귀 식은 1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는 거주 지역, 학년 및 학업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이성교제 인식수준이 높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2>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3.010		63.910***	.230	.053		30.466***
	거주 지역	.352	.230	5.520***				
2	(상수)	2.578		29.233***	.327	.107	.054	32.596***
	거주 지역	.357	.234	5.761***				
	학년	.212	.233	5.739***				
3	(상수)	2.297		16.669***	.344	.119	.011	24.297***
	거주 지역	.342	.224	5.527***				
	학년	.220	.242	5.969***				
	학업성적	.137	.107	2.642**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1, *p<.001

v.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1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37$, $p<.001$)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학업성적($\beta=.222$, $p<.001$)과 거주 지역($\beta=.156$, $p<.001$)이 선택되었다. 본 회귀 식은 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는 학업성적 및 거주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성충동조절 인식수준이 높아지며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농어촌지역인 경우에 비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3.399		25.286***	.237	.056		32.325***
	학업성적	.369	.237	5.686***				
2	(상수)	3.285		24.119***	.283	.080	.024	23.689***
	학업성적	.347	.222	5.381***				
	거주 지역	.290	.156	3.777***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vi.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 모두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4>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β	t	R	R ²	F
(상수)	2.573		10.345***	0.106	0.011	1.234
성별	-.028	-.015	-.353			
학년	-.071	-.064	-1.501			
거주 지역	.118	.064	1.468			
경제적 수준	.057	.027	.624			
학업성적	-.083	-.053	-1.219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vii.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1단계에서 거주 지역($\beta=.235, p<.001$)이 선택되었다. 2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215, p<.001$)과 학업성적($\beta=.211, p<.001$)이 선택되었고 3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216, p<.001$), 학업성적($\beta=.224, p<.001$) 및 학년($\beta=.151, p<.001$)이 선택되었다. 4단계에서는 거주 지역($\beta=.211, p<.001$), 학업성적($\beta=.233, p<.001$), 학년($\beta=.150, p<.001$), 성별($\beta=-.126, p<.01$)이 선택되었다. 또한 본 회귀 식은 13.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성인식에는 거주 지역, 학업성적, 학년 및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이 높고, 학업성적과 학년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성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5>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B	β	t	R	R ²	ΔR^2	F
1	(상수)	3.384		143.812***	.235	.055		31.777***
	거주 지역	.180	.235	5.637***				
2	(상수)	3.124		56.421***	.315	.099	.044	29.948***
	거주 지역	.165	.215	5.267***				
	학업성적	.135	.211	5.160***				
3	(상수)	2.968		43.153***	.349	.122	.023	25.121***
	거주 지역	.165	.216	5.355***				
	학업성적	.143	.224	5.513***				
	학년	.069	.151	3.746***				
4	(상수)	3.008		43.345***	.371	.138	.016	21.630***
	거주 지역	.161	.211	5.245***				
	학업성적	.149	.233	5.775***				
	학년	.068	.150	3.732***				
	성별	-.096	-.126	-3.149**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1, *p<.001

2)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여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26>와 같다.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모형2는 17.1%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음란물 접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중학생들의 음란물 접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여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03	.039	-.004	-.054
성별			.209	.211***
학년			.088	.148***
거주 지역			.334	.336***
경제적 수준			.009	.008
학업성적			.045	.054
상수	.313		.020	
R ²	.002		.171	
F	0.822		18.588***	

주) method=stepwise,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3) 자아존중감이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① 자아존중감과 성인식 수준 및 음란물 접촉여부와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식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7>과 같이 전체적인 성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r=.198(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인식도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인식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 평등과의 상관관계는 $r=.227(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성폭력 및 순결의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이성교제와의 상관관계는 $r=.136(p<.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충동 조절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r=.261(p<.001)$ 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충동 조절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과 임신·낙태와의 상관관계는 $r=-.110(p<.05)$ 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신·낙태에 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강수경(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성인식과의 상관관계에서 순결의식, 성폭력의식, 이성관계 의식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충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성교제와 성폭력의식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음란물 접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음란물 접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인식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자아존중감과 성인식과의 상관관계

	음란물 접촉	성 평등	성폭력	순결 의식	이성 교제	성충동 조절	임신 . 낙태	성인식 전체
자아 존중감	.039	.227***	-.030*	.061	.136**	.261***	-.110*	.198***

*p<.05, **p<.01, ***p<.001

② 자아존중감이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i. 자아존중감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모형1은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5.2% ($F=29.656$, $p<.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beta=.227$, $p<.001$)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 평등 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형2에서도 자아존중감($\beta=.158$, $p<.001$)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7.0%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11.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성 평등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자아존중감이 성 평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31	.227***	.022	.158***
성별			-.302	-.172***
학년			.167	.159***
거주 지역			.255	.144***
경제적 수준			.059	.030
학업성적			.320	.216***
상수	2.779		2.060	
R ²	.052		.170	
F	29.656***		18.39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ii. 자아존중감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형2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19.4%(F=21.651, p<.001)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성폭력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자아존중감이 성폭력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03	-.030	-.003	-.025
성별			-.563	-.418***
학년			.011	.014
거주 지역			.037	.027
경제적 수준			.011	.007
학업성적			.179	.158***
상수	4.075		3.910	
R ²	.001		.194	
F	.493		21.65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iii. 자아존중감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순결의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순결의식의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형2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3.0% (F=2.747, p<.05)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순결의식의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은 순결의식의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자아존중감이 순결의식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07	.061	.009	.071
성별			.037	.024
학년			-.083	-.090*
거주 지역			-.198	-.127**
경제적 수준			.095	.055
학업성적			-.022	-.017
상수	3.113		3.160	
R ²	.004		.030	
F	2.019		2.747*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5, **p<.01

iv.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모형1은 1.8%(F=10.229, p<.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β =.136, p<.01)은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2는 이성교제에 대한 설명력이 12.9%(F=13.274, p<.001)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모형 2에서는 통제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16	.136**	.007	.060
성별			.106	.070
학년			.217	.238***
거주 지역			.333	.218***
경제적 수준			.036	.021
학업성적			.106	.083
상수	2.574		1.963	
R ²	.018		.129	
F	10.229**		13.274***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1, *p<.001

v. 자아존중감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모형1은 6.8%(F=39.851, p<.00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β =.261, p<.001)은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2는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12.4%(F=12.741, p<.001)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자아존중감(β =.217, p<.001)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자아존중감이 성충동조절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38	.261***	.032	.217***
성별			-.089	-.048
학년			.001	.001
거주 지역			.268	.144***
경제적 수준			-.161	-.078
학업성적			.281	.180***
상수	2.660		2.596	
R ²	.068		.124	
F	39.851***		12.74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 p<.001

vi. 자아존중감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모형1은 1.2%(F=6.664, p<.0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beta=-.110$, p<.05)은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2는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2.4%(F=2.174, p<.05)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형 2에서는 자아존중감($\beta=-.119$, p<.01)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신·낙태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자아존중감이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16	-.110*	-.017	-.119**
성별			-.004	-.002
학년			-.060	-.055
거주 지역			.136	.073
경제적 수준			.096	.047
학업성적			-.039	-.025
상수	3.056		3.022	
R ²	.012		.024	
F	6.664*		2.174*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5, **p<.01

vii.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모형1은 3.9%(F=22.107,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β =.198, p<.001)은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2는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15.4%(F=16.361, p<.001)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자아존중감(β =.124, p<.01)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경(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성의식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34>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012	.198***	.007	.124**
성별			-.108	-.142***
학년			.064	.140***
거주 지역			.147	.193***
경제적 수준			.028	.033
학업성적			.125	.196***
상수	3.025		2.728	
R ²	0.039		0.154	
F	22.107***		16.361***	

주) 더미변수 1)성별: 남=1, 여=0, 2)거주 지역: 도시지역=1, 농촌지역=0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기에 놓여있는 제주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음란물접촉과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최종적으로 546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란물 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3.0%,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57.0%로 음란물을 접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는 중학생 이후가 52.3%, 초등학교 4-6학년이 43.0%, 초등 1-3학년은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청 동기는 친구를 통해 보았다는 응답이 50.2%,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았다는 응답이 30.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요 시청 경로는 스마트폰이 74.5%, 인터넷이 18.3%, 책이 2.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청 장소는 응답자 자신의 집이 82.6%, 친구 집이 8.5% 순으로 자신의 집에서 시청하는 것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는 사람은 혼자 본다는 응답이 79.1%, 동성친구가 13.2%, 이성친구가 2.6% 순이다. 음란물 접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 이후에 친구를 통해 처음 음란물을 접하고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음란물을 시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 대가족, 기타가족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수준이 넉넉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별,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 비해 남자

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도시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농어촌 지역 중학에 비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년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음란물 접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음란물 접촉 경험은 남자 52.6%, 여자 33.6%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음란물 접촉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31.1%, 2학년은 51.5%, 3학년은 47.0%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음란물 접촉 경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은 57.7%, 농어촌지역은 25.4%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음란물 접촉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전체적인 성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핵가족의 학생들이 성인식이 가장 높고 대가족, 기타가족의 순으로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수준이 넉넉할수록 성인식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전체적인 성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접촉 여부에 따라서는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체적인 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인식 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성인식과 학년,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성인식수준도 높아지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인식 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의 중학생들이 농어촌지역의 중학생에 비해 전체적

인 성인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거주 지역, 학업성적, 학년 및 성별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의 학생들의 성인식 수준이 높고 학업성적과 학년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의 성인식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음란물 접촉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의 모형에서는 성별, 학년,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음란물 접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더 큰 영향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자아존중감과 성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성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성인식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성평등, 이성교제, 성충동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낙태와의 상관관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인식은 긍정적이며 성인식의 하위요인인 성평등, 이성교제 성충동도 긍정적인 반면 임신·낙태에 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인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성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성인식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성 평등, 성충동조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낙태 인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인식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 교육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지원방안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와 환경의 개선과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성에 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제언과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중학생 5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비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성인식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추후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이 객관화 될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고 기준 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자아존중감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추후에는 성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다양한 요인을 추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음란물 접촉 등 예방차원의 교육이 절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경 (2014).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 문제행동, 사회 적지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진영 (2009). 「고등학생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그에 따른 성지식, 성 태도, 성 행동에 관한 연구 : 울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춘식 (2013). 「중학생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간의 관련성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봉만 (2012). 「청소년의 성인식과 성 태도 및 자기유능감에 관한 연구: 서울시 양천구 관내 남·녀 중학생 대상으로」,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수연 (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성 행동의 변화 연구: 1 학년 여중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선 (2000). 「컴퓨터 통신을 통한 청소년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숙 (2005). 「중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충동,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막희 (2003).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청소년의 성태도·성행동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전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원 (2001). 「한국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 조사 및 성교육 자료집 개발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 가족보건복지협회.
- 김은수 (2015).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스트로크 유형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김은경 (1994). 「음란물의 유행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숙 (1995).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청소년상담 : 청소년상담의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 『청소년상담연구지』 3권 1호, 1226~143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혜영 (2012).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 데이비드 월시 (2011). 「10대 들의 사생활」, 시공사.
- 박병금·노필순(2009).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적응」, 『청소년학연구』 16권 8호, 한국청소년학회.
- 박영순 (2003). 「청소년의 성 의식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음란물 접촉,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2005). 「사춘기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관련 행동 실태 조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성 (2014). 「스마트폰 이용이 청소년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진수 (2002). 「고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지식 및 성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준 (2008).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희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음란물 접촉 및 성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희 (2009).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 경험이 성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봉기 (2013).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웅 (2010).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문화(16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양돈규·조남근 (2004).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과 성비행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 어기준 (2002). 「청소년 음란물 중독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관련 음란물의 실태와 대책」, 제 27회 21세기 청소년포럼 발표논문
- 윤정애 (2010). 「청소년 성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인천관내 남·녀 중학생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박윤창 (1995). 「음란 출판물이 청소년의 성행동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규영·송승훈 (2016).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이 고등학생의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이돈희 (1996). 「학교폭력 유발 및 증가요인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이무석·이인수 (2015).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 알피코프.
- 이문희 (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성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성교육 지도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희 (2006).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2011).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건강성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신앙 유무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5). 「20대 미혼 장애인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2010). 「청소년의 성지식, 성 태도 및 웹기반 성교육 요구조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원 (2009).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 문화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전

- 문제. 일반계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배 (2000). 「청소년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의 활용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pp107-124.
- 제형강 (2013).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음란물노출이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범·임진섭 (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상호 작용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 최성애·조벽 (2012). 『청소년의 감정코칭』, 해냄.
- 최정순 (2009).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청소년 성의식간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학생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경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 통계」
-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EBS (2014). 『아이의 사생활』.
- 법령정보 「청소년기본법 3조 1항」 (2014.3.24 개정)
「청소년보호법 2조 1항」 (2014.3.24 개정)
「청소년보호법 9조」 (1997.7.1 제정)
「청소년성보호법 2조」 (2014.4.28 개정)
- Buerkel-Rothfuss, N. L., Strouse, J. S., Pettey, G., & Shatzer, M. (1993).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xposure to sexually oriented and sexually explicit media」. In B. S. Greeberg, J. Brown & N. L. Buerkel-Rothfuss(eds.), Media, sex and the adolescent (pp.99-113).

- Cresskill, NJ: Hampton Press.
- Cline (1974). 「Where do you draw the line?」,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 (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pp. 4-5, 96-117). New York: Academic Press.
- Gunter, B. (2002). 「Media sex」,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ll, G. S. (1994). 「Adolescence.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1. 1, N.Y. : Academic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Thornburgh, D., & Lin, H. S. (2002). 「Youth,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Winn, S., Roker, D. & Coleman, J. (1995). 「Knowledge about Puberty and Sexual Development in 11-16 Year-olds : implications for health and sex education in schools」. 『Educational Studies』. 21(2). (pp. 187 - 6201).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음란물 접촉과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과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거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어 통계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제주 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 성 혜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학생의 학년은? ① 중 1학년 ② 중 2학년 ③ 중 3학년
3. 학생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도시지역 ② 농어촌지역
4. 현재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① 핵가족 (양부모) ② 대가족 (조부모포함)
③ 기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
5. 귀하의 가정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넉넉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어렵다
6. 귀하의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 상위 ② 중위 ③ 하위

※ 다음은 음란물 접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란물이란, 음란한 만화, 소설, 야설과 노골적인 성적묘사가 있는 동영상, 게임, 사진,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7. 음란물을 접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없다 (11번 문항으로)
8.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① 초등 1-3학년 ② 초등 4-6학년 ③ 중학생 이후
9.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처음으로 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친구를 통해서 ② 검색하다가 우연히
③ 일부러 검색을 해서 ④ 광고를 보고
⑤ 기타()
10. 음란물은 주로 어떻게 보나요?

14. 다음은 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바람직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성행위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순결은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순결을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성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8	성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성충동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성의 지위상승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낙태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성폭력에 관련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Effect of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Jeju Region on Contact with Pornography and Sexual Awareness

Sung-Hye Park

Social Welfare Major, Administrative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i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in-Young Kim

The social atmosphere of our society has been greatly changing, which affected culture, lifestyle awareness, and the structure of awareness. This has enabled an easy approach to a culture of free and open sex. Adolescents displayed to obtain sexual knowledge or information from public media or friends who do not have scientific knowledge on sex, rather than from schools or homes.

Thus,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Jeju region on sexual awareness and contact with pornography. Upon conducting a survey on 600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Jeju region, 556 copies were returned, among which, 546 copi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insincere answers. SPSS 18.0 was used to process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of the main research analyz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3.0%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 in contact with pornography,

with their first contact being through a friend after middle school, and the highest proportion of students watching pornography while home alone with a smart phone.

Second, the difference in self-esteem based on demographic social factors was lower in studen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compared to students in urban regions. Self-esteem was higher in the order of nuclear families, large families, and other families, and higher economic levels and academic grades increased self-esteem.

Third, upon analyz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ontact with pornography according to demographic statistical factors, it was displayed that males have much higher experience in contact with pornography compared to females, and experience in contact with pornography was highest in the order of 2nd grade students, 3rd grade, and 1st grade. Furthermore, the students in urban regions had a much higher experience in contact with pornography compared to thos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urth, upon analyzing the difference in overall sexual awareness based on demographic social factors, females had a higher sexual awareness compared to males, and sexual awareness was highest in 3rd grade students, compared to 1st and 2nd grade students. The students in urban regions had a higher sexual awareness compared to studen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students had higher sexual awareness in the order of those in nuclear families, large families, and other families. Students displayed a higher sexual awareness with higher financial economic levels and academic grades.

Fifth, self-esteem and overall sexual awareness display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thus, sexual awareness also had a positive result with higher self-esteem. Furthermore, self-esteem display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xual equality and awareness of controlling sexual impulses, among the sub-categories of sexual awareness, and a negative effect on the awareness of pregnancy and abortion.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self-esteem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exual awar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establish correct sexual awar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research for increasing self-esteem must be continually conducted.